

꽁꽁 얼어붙은 경기...설 이후에도 여전히 먹구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87.0...2개월 연속 80대 기록 부진 이달 광주·전남 CCSI 83.4...32개월째 기준치 100 하회 2월 중소기업 전망지수도 하락...추경 등 부양대책 필요

설 연휴가 끝나가면서 본격적인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및 정치적 리스크로 내려앉은 각종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각종 경제 단체들의 기업 경기 전망치는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등 혼란을 빚고 있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 역시 지난 1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2월 전망 기업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7.0으로 전월(84.6) 대비 2.4포인트(p) 상승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기업 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낮으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BSI 전망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로 폭락한 이후 2개월 연속 80대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이처럼 BSI 전망치가 연속으로 80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이 부진했던 지난 2022년 10월-2023년 2월 이후 2년만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3.0)과 비제조업(81.4) 전망치 모두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제조업BSI 전망치는 지난해 4월(98.4) 이후 11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비제조업BSI 전망치는 전월(84.9)보다도 3.5p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 7월(72.4) 이후 4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갱신하는 등 기업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소비심리 역시 지난달 3개월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최근 '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이달 광주·전남지역 소비

자심리지수(CCSI)가 83.4로 전월 대비 4.0p 오른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10월(95.2)→11월(91.5)→12월(79.4) 이후 3개월만의 반등이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전월에 비해 현재 생활형편(0.0p), 현재경기판단(-0.2p) 등은 현재보다 악화되고, 생활형편전망(+0.8p), 가계수입전망(+1.1p), 소비지출전망(+1.0p), 향후경기전망(+1.3p) 등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전망한 결과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소폭 상승한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 여파 등에 따른 소비침체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CCSI를 기록한 것 등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역 CCSI는 지난 20년간의 장기평균치인 100에 크게 못미쳐 지역민들의 소비심리는 여전히 비관적이며, 광주·전남CCSI는 지난 2022년 5월(102.3) 이후 32

개월째 100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2월 경기는 지금보다도 악화될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 자료를 통해 오는 2월 중소기업 SBHI가 67.5로 전월(68.1)에 견줘 0.6p 하락했다고 밝혔다. SBHI 역시 기업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100보다 높으면 향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낮으면 부정적임을 뜻하는 만큼, 60대를 기록한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코로나19 이후 최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SBHI가 75.2로 이달보다 1.2p 상승하고, 비제조업 SBHI는 1.3p 하락한 64.2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방투자 보조금 100억→150억...지방이전 기업 늘어날까

국가 재정 지원기준 개정안 시행 중소기업 지원비율 가산율도 상향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가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조금 상향 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지 주목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도 기존 5%포인트(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라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가 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된다. 경제안보포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2%p 가산한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대체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해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국비 2244억원과 지방비 1152억원 등 총 3396억원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을 지원하고,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 11년새 최저

총자산순이익률 2년째 떨어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의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3년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11년(2013-2023년) 사이 가장 낮았고, 총자산순이익률은 2년째 떨어졌다.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13-2023년 코스피 상장사의 재무제표(연결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1년(2013-2023년) 중 가장 낮다. 영업이익률이 4%대로 내려앉은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3년

5.5%에서 2017년 8.5%까지 올랐다. 2018년 8.0%, 2019년 5.1%로 떨어진 뒤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에 5.5%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며 2021년 8.0%로 급반등했다가, 2022년 다시 5.8%로 떨어진 뒤 2023년에는 4%대로 내려왔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로 기업이 경영 핵심인 영업활동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것은 기업이 원가를 과도하게 지불하거나, 판매비·관리비를 많이 지출해 수익성이 작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부진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20억원 특별출연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협약

광주은행은 지난 2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억원의 자금을 특별출연했다. <사진> 이날 협약은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광주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419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고, 광주시는 1년간 3-4%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소재 도·소매, 음식점 등 58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7년 이내로, 광주시 내 광주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특별보증 대출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



은 광주시 제 1급고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소상공인을 위해 70억원을 특별출연해, 1743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봄 고객맞이 의류·가방 등 신상품 교체 구입고객 멀티백 증정 행사

광주신세계가 30일 다음주 새해의 첫 절기인 입춘(立春 2월 3일)을 앞두고, 다양한 신상품을 비롯한 2025년 SS상품을 준비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봄 고객맞이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디사이즈네버', '살로론' 등 35개 신규 브랜드가 입점한 '플레이스팟'에는 전체 품목의 절반 이상을 SS 신상품으로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데상트' 매장은 전체 품목의 80% 가량을 25년 SS시즌 신상품으로 준비했다. 고객 수요가 높은 턴트 백팩은 블랙, 화이트, 스카이블루 등 3가지 컬러로 출시했으며, 오는 2월 말까지 턴트 가방을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멀티백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 광주신세계 '뉴발란스' 역시 전체 품목의 70% 가량을 SS시즌 신상품으로 채웠다. 뉴발란스 매장에서 의류, 가방 등 다양한 품목 중 가장 수요가 높은 품목은 러닝화인 '퓨어셀 SC 엘리트 V4'

로, 간단한 러닝부터 마라톤 풀코스까지 소화할 수 있는 최상급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인기 품목인 만큼, 광주신세계 방문객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같은 층에 위치한 '마리떼프랑소와저버'에서는 '여성용 니트집업 상하의 세트'가 인기 품목으로

췌했다. 해당 품목은 패딩 조끼를 걸쳐 겨울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따뜻한 봄을 맞아 외투 없이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광주신세계 마리떼프랑소와저버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겨울용 일부 제품을 오는 3월 3일까지 최대 30%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해 로또 판매액 6조원 육박 '역대 최대'

2014년 이후 매년 기록 행진

로또복권에 지난해 6조원 가까이 팔리며 또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5조 956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로또는 판매 시작 이듬해인 2003년 3조 8000억원어치가 팔리며 '광풍'에 휩싸였다. 사행성 논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당첨금 이월 횟수를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 그러자 연간 판매액은 2조원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판매액은 점차 증가해서 2014년 3조

411억원으로 다시 3조원대를 넘었고, 이후 매년 기록을 새로 썼다. 2019년에는 4조 3082억원으로 처음 4조원대로 올라섰으며, 2021년에는 5조 1148억원으로 5조원대가 됐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 판매액은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등'은 763명으로, 회차에 따라 당첨 금액이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가장 당첨액수가 컸던 회차는 11월 23일 추첨한 1147회차로, 8명이 각각 33억 2300여만원을 받았다. 반면, 7월 13일 추첨한 1128회차에서는 당첨자가 무려 63명이나 나오며 1명당 당첨금은 4억 2000여만원에 그쳤다. 로또로 '인생 역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연합뉴스

전력거래소 상반기 신입사원 39명 공개채용

다음달 10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국전력거래소가 2025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신입사원 39명을 신규 채용한다. 신규 채용 신청은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까지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1차·2차)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전년(24명)보다 15명(62.5%) 증가한 39명을 채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입직 20명, 전

문경력직 11명, 별정직 1명, 공무원 4명, 계약직 3명을 뽑는다. 전력거래소는 보훈대상자 4명, 이전 지역 인제 6명, 장애인 1명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시행하며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약자 우대 가정제도도 적용한다. 한국전력거래소 채용 담당자는 "투명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높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등 기량 역량 제고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스닥 강타한 '딥시크 쇼크'...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체 반영 여파 주목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유추할 수 있는 'iShares MSCI 한국 ETF'는 지난 27일 2.42%, 28일 0.46% 하락했으나 29일에는 0.22% 올랐다. 2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고 증시가 개장했다면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증시로서는 긴 연휴 덕에 폭풍을 피해간 셈이다. 결국 29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MS-메타와 30일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 등 빅테크 업체의 실적에 대한 반응과 이들의 딥시크에 대한 코멘트가 변동성의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동결도 국내 증시가 소화해야 할 재료다. 연준은 작년 9월 50bp(1bp=0.01%포인트)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한 뒤 11월,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는데 새해 첫 회의에서는 동결을 택했다. /연합뉴스

긴 명절 연휴를 마치고 오는 31일 개장하는 국내 증시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쇼크의 여파를 어떻게 반영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지난주 출시한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이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 무료 앱 순위에서 미국 오픈AI의 챗GPT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공지능(AI) 거품 붕괴 공포가 시장을 뒤흔치면서다. 'AI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주가는 크게 출렁이는 등 미국 빅테크는 충격에 휩싸였고 국내 반도체 업계도 향후 AI 분야의 판도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31일 일주일 만에 개장하는 한국 증시는 이같은 재료를 단번에 반영하게 된다. /연합뉴스